

아르헨티나전 앞둔 김학범 감독 “패를 다 깔순 없다”

오늘 오후 평가전...16일엔 프랑스와 모의고사

김민재 와일드카드 확정 여부에 “아직 진행 중”

도쿄올림픽서 사상 최고 성적에 도전하는 김학범호가 강호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에서 최대한 전력을 감추겠다고 밝혔다.

김학범 감독 12일 오후 대한축구협회 유트브로 진행된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팀의 완성도는 어느 누가 나가도 제 역할을 할 정도에 와 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며 “선수들이 아르헨티나전을 어떻게 운영할지, 경기장에서 잘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3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17일 결전지인 일본으로 출국하는 김학범호는 아르헨티나에 이어 16일 프랑스와 출정식을 겸한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 전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감독은 “본선 경기에 맞춰 경기력은 70~80% 정도다. 체력적인 부분과 선수들 몸 상태, 전술적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경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와 평가전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선을 앞두고 감추 건 최대한 감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상대에 대응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세트피스는) 아마 못 보실 것이다. 우리 경기가 노출될 게 뻔한 데 패를 다 깔 수 없다. 선수 운용과 전술, 세트피스 마 찬가지다. 최대한 안 보여주면서 어떻게 효과를 낼지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베스트11에 대해서도 “그날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베스트11이다. 주축 선수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22명의 선수가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일드카드 수비수 김민재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

럽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 감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어떤 것도 결과가 나온 게 없다. 플랜1과 플랜2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본선 B조에서 경쟁할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에 대한 전력 분석도 진행 중이다. 김 감독은 “지금도 계속 전력 분석이 진행 중이고, 바뀌는 정보는 추가하고 있다. 상대도 평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를 더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관중 없이 치러진다.

김 감독은 “마지막 점검을 팬들 앞에서 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면서



김학범 남자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

허석 순천시장, 도쿄올림픽 출전 순천시청 유도 선수 격려

여자 52kg급 박다솔·여자 48kg급 강유정 메달 도전



허석 순천시장은 9일 순천시청에서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순천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선수들을 격려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순천시청 소속 선수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여자유도 -52kg급의 박다솔 선수와 -48kg급의 강유정 선수 총 2명이다.

허석 시장은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응원하겠다.”며 “다치지 않고 선수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유도 여자·48kg급에 출전하는 강유정 선수는 오는 24일, -52kg급에 출전하는 박다솔 선수는 25일 일본 무도관에서 각각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순천=김승호기자

좌측부터 순천시청 유도부 김양호 감독, 순천시체육회 이상대 회장, 박다솔 선수, 강유정 선수, 허석 순천시장



이탈리아 선수들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승리, 우승하며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잉글랜드와 1-1로 비긴 뒤 연장 끝 승부차기에서 잉글랜드를 3-2로 물리치고 53년 만에 유로 2020 정상에 올랐다.

이탈리아, 53년 만에 유로 정상 ‘아주리군단’ 화려한 부활 알렸다

2018 월드컵 유럽예선 탈락 후 ‘만치니 체제’서 반전 드라마

‘아주리군단’ 이탈리아가 53년 만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정상에 서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불과 4년 전 이탈리아는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탈락하며 월드컵에 초대받지 못했다.

4차례나 월드컵을 제패했던 이탈리아의 본선 진출 실패는 무려 60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 예선에서 고전하다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마지막 기회를 얻었으나,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스웨덴과 2연전에서 1무1패로 저 고개를 숙였다.

악몽의 연속이었다.

이탈리아는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와 한 조에 속해 1승2패, 조 3위로 탈락해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3년 뒤 실욕은 커녕 아예 유럽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암흑기를 맞았다.

김 감독은 “이탈리아는 체질 개선에 나섰다. 월드컵 탈락의 원인이 된 피에로 벤투 감독을 경질하고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갈라타사라이(터키), 제니트(러시아) 등을 이끌던 로베르트 만치니 감독을 소방수로 낙점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축구협회의 만치니 선임은 53년 만의 유로 우승이란 결실로 이어졌다.

만치니 감독은 베테랑이 즐비하던 이탈리아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중원에 마르코 베라티(파리생제르맹), 조르지뉴(첼시), 니콜로 바벨라(인터밀란) 등을 중용했고, 공격에선 페데리코 키에사(유벤투스)를 발굴했다.

만치니 감독의 변화는 서서히 효과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1년 연기된 사이 조직력이 쌓이면서 무패행진을 이어갔고, 이는 대회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됐다.

조별리그 3경기를 전승으로 통과한 이탈리아는 고비였던 토너먼트 16강 오스트리아전을 연장 혈투 끝에 잡았고, 스페인과 4강전에서 승부차기에서 웃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 예선에서 고전하다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마지막 기회를 얻었으나,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스웨덴과 2연전에서 1무1패로 저 고개를 숙였다.

악몽의 연속이었다.

이탈리아는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와 한 조에 속해 1승2패, 조 3위로 탈락해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3년 뒤 실욕은 커녕 아예 유럽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암흑기를 맞았다.

김 감독은 “이탈리아는 체질 개선에 나섰다. 월드컵 탈락의 원인이 된 피에로 벤투 감독을 경질하고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갈라타사라이(터키), 제니트(러시아) 등을 이끌던 로베르트 만치니 감독을 소방수로 낙점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축구협회의 만치니 선임은 53년 만의 유로 우승이란 결실로 이어졌다.

만치니 감독은 베테랑이 즐비하던 이탈리아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중원에 마르코 베라티(파리생제르맹), 조르지뉴(첼시), 니콜로 바벨라(인터밀란) 등을 중용했고, 공격에선 페데리코 키에사(유벤투스)를 발굴했다.

경기 후 보누치는 “바다까지 추락해보니 위대한 팀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실패가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올림픽 야구·배구, 코로나 대비 경기방식 플랜B ‘확정’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새로운 방식과 마주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한국시간) 각 종목 국제연맹(IF)과 공동으로 마련한 2020 도쿄올림픽 코로나19 특별 규정을 발표했다.

야구의 경우 참가팀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결이 불가능해지면 방식에 손을 대기로 했다.

6개팀이 참가하는 야구는 3개팀씩

두 개 조로 나뉘어 경합을 벌인 뒤 패자부활전이 가미된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 예정됐다.

야구, 6개팀 중 1개팀이라도 빠지면 5개팀 모두 맞대결

배구, 코로나 발생 팀 나오면 결장...예선 차순위 팀 진출

하지만 6개팀 중 1개팀이라도 빠지게 되면 남은 5개팀이 모두 맞대결을 갖고 그 결과 1~2위팀이 금메달 결정전을, 3~4위팀이 동메달 결정전을 치

르게 된다.

결승에 오른 팀이 코로나19로 이탈이 불가피할 경우 3위팀에게 금메달

결정전엔 티켓이 주어진다. 3~4위전 팀이 빠지면 남은 팀이 자동으로 동메달을 가져간다.

축구는 자동 실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개팀이 2개조로 나뉘어 예선을 가진 후 8강부터 토너먼트로 전환되는 배구는 예선 차순위 팀이 토너먼트를 대신한다.

개인적인 골프는 코로나19로 출전이 힘든 선수를 기권 처리하기로 했다. 유도와 펜싱 등 하루에 예선부터 금메달 결정전까지 모든 경기가 치러지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 20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윌블던 남자단식 제패...페더러·나달과 타이거룩



노박 조코비치(34·세르비아·1위)가 윌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을 잡아 삼키며 메이저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20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조코비치는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윌블던의 올드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세티스 코어 3-1(6-7(4) 6-4 6-4 6-3)로 제압했다.

첫 세트를 빼앗긴 조코비치는 남은 세 세트를 연거푸 따내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20번째 메이저대회 단식 트로피를 획득, 로저 페더러(스위스·8위), 라파엘 나달(스페

인·3위)의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들은 전설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선수”라면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페더러와 나달은 트위터를 통해 조코비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조코비치의 올해 메이저대회 우승은 호주오픈, 프랑스오픈을 포함해 세 번째다. US오픈까지 제패하면 조코비치는 한 해에 4개 메이저대회 우승을 모두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남자 단식 ‘캘린더 그랜드슬램’은 1938년 돈 버지(미국)와 1962년, 1969년 로드 레이버(호주) 등 세 차례 뿐이었다.

2020 도쿄올림픽 출격을 앞둔 조코비치는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와 올림픽 금메달을 독식하는 ‘골든 슬램’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기록은 1988년 여자 단식의 슈테피 그라프(독일)만이 갖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GK 임민혁, 제대 후 팀 복귀

전남드래곤즈 GK 임민혁이 최근 상근예비역 제대 후 팀에 복귀했다.

임민혁은 포항스틸러스 U-18 포철공고 졸업 후 2013년 현대미포조선에 입단하여 내셔널리그 11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우승에 기여했다.

2014년 고려대에 입학한 그는 2014, 2015년 춘계대학연맹전 2년 연속 우승과 GK상을 수상했고, 2017년 신인으로 전남드래곤즈로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대위 첫 시즌 이호승에 이은 남부투 골키퍼로 3경기를 소화한 후, 이듬해인 2018년 출전기회를 위해 K리그2 대전시너즌으로 임대를 가서 9경기에 출전했다. 2019년 전남드래곤즈로 복귀한 임민혁은 박준혁과 이호승, 2명



의 기라성과 같은 선배 골키퍼들의 존재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1994년생인 임민혁은 박준혁, 김다솔과 같은 선배 골키퍼들과 오찬식, 김병영 등 나이가 어린 골키퍼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권순우, 세계랭킹 69위로 상승

개인 역대 최고 타이

권순우(24·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 69위에 올랐다.

권순우는 12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해 71위보다 두 계단 오른 69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월초 69위 개인 최고 순위 타이틀을 이루는

것이다. 12일 영국 런던에서 끝난 윌블던에서 단식 본선 2회전까지 진출한 권순우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60위권에 들어갔다.

윌블던 정장에서 오르며 올해 메이저대회 3연속 우승에 성공한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굳건하게 1위를 지켰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2월부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